

# 2호기도 정지...한빛원전 6기중 4기 멈췄다

### 계획예방 정비 위해 가동 중단 여름철 전력수급·안전 불안감 원전세 줄어 지역경제 영향도

한빛 원자력발전소 6기 중 4기가 멈췄다. 한빛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0MW급)가 계획예방 정비를 위해 3일부터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정비를 위해 한빛 3·4호기가 장기간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지난 4월 5호기에 이어 이번 2호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자 여름철 전력 수요와 안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본부에 따르면 한빛 2호기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제24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했다.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18개월마다 설비검사·점검·정비 등을 하는 작업이다. 정비기간은 계획된 정비계획마다 50~150일까지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한빛 2호기는 8월 중순까지 계획예방정비로 멈췄다가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한빛 2호기는 원전연료 교체와 각종 정비 및 설비개선 업무를 통해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0일 한빛 5호기가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8월 말에 나 되어 발전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결국 휴가철이 끝나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8월 중순까지는 6기 중 4기가 멈춰선 상태여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빛 원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량의 7%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에서 공극이 발견되고 원자로 헤드에서 미세균열까지 발견된 점, 한빛 3·4호기 계획예방정비에서도 수십개의 공극 등이 발견돼 현재까지 멈춰선 점 등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장기간 원전 가동 중지로 영광군에 지원되는 세금과 각종 사업비도 크게 줄어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광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하지만, 발생 전력량에 비례해 매겨지는 원전세가 매달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6년에만 442억원의 원전세를 냈지만 지난해는 236억 원만 냈다. 올해 3·4호기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200억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빛원전측 관계자는 "전력수급은 전력거래소가 전국의 발전소의 발전량을 토대로 내놓는 하계전력수급계획에 달렸다"면서 "올 여름 더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해에는 전력예비율이 10%정도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올해 11월 30일, 6호기는 내년 1월 7일 계획예방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장애인들 모처럼 나들이 3일 광주시 북구 한국미술박물관을 찾은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나들이는 '광주, 따뜻한 동행' 문화유산 소풍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수개월간 집안에서 지내던 장애인들이 소풍에 나섰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목포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16년 연속 최우수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전남도가 실시한 '2020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16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내 7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목포대 창업보육센터는 정량평가에서 만점, 정성평가를 합산한 최종점수에서 월등한 점수 차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석인 창업보육센터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전라남도 운영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민감통 청장 광주 경찰총합탐 참배 민감통 경찰청장은 3일 광주를 방문해 코로나19 지원 활동과 외국인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광주를 찾은 민 청장은 광주 북부서에서 열린 경위 특진임용식에 참석해 송진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다. 민 청장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 교류원을 둘러본 뒤 광주 경찰총합탐을 참배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옛 광주교도소 발굴 유골함에서 탄두 발견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발견된 261명의 유골터미에서 탄두가 발견됐다. 3일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탄두는 41개 종이상자에 나눠 담긴 유골통 30번째 상자에서 X선 검사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의 상태는 찌그러져있어 정확한 생산연도 등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국과수 관계자는 정밀 검사를 통해 이 탄두는 카빈총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 탄두가 5·18 행방불명자의 암매장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에서 무연고자 묘지를 이장하려다 합장묘 1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을 발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우리민족 호남권역통일교육센터' 9일 출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통일교육을 담당할 '우리민족 호남권역통일교육센터'가 오는 9일 출범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권역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은 기존 17개 광역 사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체계로 개편됐다. 호남권역통일교육센터는 사단법인 '우리민족'이 올해 새롭게 운영을 맡았으며, 앞으로 2년간 호남권 내 평화통일교육의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역 통일교육위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내 통일교육 활성화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호남통일교육센터장을 맡은 김영록(사)우리민족 이사장은 "호남통일교육센터가 평화통일교육의 기관으로 공신력과 실행능력을 겸한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권 내 지자체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북구 코로나19 덮친 1분기 폐업률 73.3%...최근 5년 평균보다 10% 증가

759개 업체 창업·556곳 영업 중단 소상공인 지원 다양한 대책 추진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앞에서 여성복 가게를 운영했던 김모(여·27)씨는 한 달 전 폐업했다. '코로나19'로 대학 개강이 미뤄지면서 학생들 발길이 뜸 끊겨 직격탄을 맞았다. 북구가 지역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올해 1분기 북구에서는 759개 업체가 창업했지만 556개가 영업을 중단, 최근 5년간 가장 높

은 73.3%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북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폐업률(73.3%)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북구 지역 폐업률은 지난해 65.7%를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66~69% 선을 오르내렸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창업 업체는 1만 4895개로 업종은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폐업 사업자는 1만 126개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

식품일반판매업 순이며 5년간 평균 폐업율은 68.3%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북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중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재정지원 사업 조기집행, 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정부 기업지원제도 안내, 기업 민원 신속처리, 피해 기업 상담장구 운영 등의 간접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보증 대

출 및 이차저차 지원 사업을 한 달 앞당겨 조기 시행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는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100만 원 감면해주는 등 민간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구의 총 사업체는 2만 4898개로 용봉동(13%)에 가장 많고 건국동(7%), 양상동(7%), 일곡동(6%), 신안동(5%)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7225개)과 소매업(8551개)이 63.3%를 차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 삼정초 통폐합 여부 25~27일 학부모 투표 결정

광주 북구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여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은 삼정초 전체 학부모 54명 중 과반인 28명 이상이 통폐합이 찬성하면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은 1학년 졸업 때까지 현 학교를 존치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과 관련한 학부모 설명회를 지난 달 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통폐합 반대 학부모의 항의 속에 진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2020년 여름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 음이온 힐링콘서트

**2020. 6. 13(토) 16:30**  
정읍 내장산 천하대장군 주차장 (매표소에서 내장사 방향 500m 부근)

● **코로나 19 대응**

- 공연 관람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정보수집동에서 작성 및 발열체크로 공연시작 최소 30분전 도착
- 관람시간 접촉은 최소화

● **입장객 안내사항**

- 14시부터 공연 관람자 내장산 국립공원 무료 입장 가능
- (구)내장산 관광호텔 부지내 주차장 무료이용(행사장까지 도보 10분)
- 무료 관람(선착순 입장)

● **문의처** : 정읍시 성장전략실 (063)539-6881~2

| 후원 |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 주최 | 주관 | 전주 MBC

조현조

자전거탄풍경

추기엽

신경영

양하영

박희진

열대일

이지혜